

“지혜로운 여인”

사무엘상 25:1-8

오늘 본문은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하고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다윗을 추종해서 따르는 군대가 600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거주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그 군대가 지켜 주는 덕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윗 덕분에 그의 많은 소유에 도둑들이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하게 되었고 재산이 많은 나발에게 도둑 맞은 셈치고 양이나 떡을 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아주 인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나발의 행동에 자존심이 상한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발의 집안을 몰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던 그 위기의 순간,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만듭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무엘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무엘이 죽으매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삼상 25:1)

다윗에게 사무엘은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것은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다윗은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한 집안을 몰살시키는 실수를 범할 뻔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청하고자 자신의 수하에 있던 소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요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하게 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즈음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삼상 25:10)

다윗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이 말에, 다윗은 분노한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이런 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는 많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왔지만, 사무엘이 죽고 난 후 찾아온 영적 침체로 인해 그는 작

은 일에도 흔들리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제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언제나 성령충만하고 항상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가 화가 난 상태로 나발의 가족들을 몰살했다면, 그는 왕이 되었을 때 이것이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자기가 얼마나 큰 사람이 될지 모르고 무명의 시절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은 일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할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작은 실수가 나중에는 우리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과 걸림돌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을 보내 주셔서 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가정이 다윗의 분노로 인해 위기에 처했음을 깨달은 아비가일은 지체하지 않고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이백 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붉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 송이와 무화과 뭉치 이백 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삼상 25:18-19)

굶주리고 화난 사람에게는 말로 위로하는 것보다 실제적인 음식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삼상 25:23)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며 용서를 구합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자신의 남편에 대해 화를 내지 말것을 요청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음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삼상 25:25)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화를 낼 만한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은 ‘어리석다’ ‘바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과 같이 자신의 남편이 어리석다고 인정합니다.

사실, 자기 가족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자기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하지 않고 정확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싸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삼상 25:29-31)

즉,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일에 피를 흘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미래를 축복하시며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종들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환경적으로 그것을 막으십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으시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시 19:7-8)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신을 차리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살인을 막기 위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보면서 잠언 31 장에 기록된 ‘현숙한 여인’ 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잠 31:10)

현숙한 여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이 자신의 인격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즉, 말씀으로 연단된 사람이 바로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남자에게 있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믿음 있고 지혜로운 아내를 만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공동체를 쓰러 뜨리기 위해 여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와가 무너지자 아담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가정에서의 여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현숙한 여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여성도님들이 아비가일과 같이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그리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여성들이 되어,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교회와 이웃을 살릴 수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의 시간

1. 영적으로 침체해 있을 때, 성급한 판단으로 일을 그르쳤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속한 가정도, 교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본받아야 할 모습은 어떤 부분인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